



# e-편한세상은 캔버스 디자인이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움’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차장을 거둬내고 입주자의 개성과 취향, 생활 패턴을 존중한다는 ‘캔버스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대림산업의 인테리어팀. ‘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주거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대림산업 인테리어팀을 찾았다.

에디터 김소진 사진 이충규

외관 디자인이 독특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종로구 삼청동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외플이 맛있는 카페로 유명한 ‘하루에(Harue)’가 나온다. 맞은편 건물 1층 카페에는 테라스에서 커피와 달콤한 외플을 먹는 사람들로 한껏 여유 있는 분위기다. 바로 그 건물 3층에 건설 업체 대림산업의 인테리어팀 사무실이 있다. 오피스 빌딩과 회색빛 건물들이 모여 있는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본사 사무실이 아닌 인왕산 자락에 트렌디한 카페와 레스토랑, 숍들이 모여 있는 삼청동 길에 건설사의 사무실이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3층으로 올라가면 통유리 벽을 통해 화이트 톤의 벽면과 나뭇결이 살아 있는 긴 목재 테이블과 모던한 원형의 조명등이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사무실 내부가 훤히 비춰진다. 천장까지 이어진 블랙 컬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앙상한 가지를 뺀 나무 옆에 컬러풀한 색감을 뿜어내고 있는 큐브(Cube) 모양의 소파가 놓여 있다.

대림산업 인테리어팀이 이곳에 등지를 틀게 된 것은 작년 이맘때쯤. 과거에는 상품개발팀이 실내 인테리어까지 담당했지만, 지금은 미술이나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7~8명으로 구성된 인테리어팀이 주도하고 있다. 현재 상품개발팀에서는 실내 인테리어를 제외한 아파트 단지 전체와 건물 외관, 내부 구조 등을 기획·개발하고 있다. 그만큼 대림산업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에 상당한 관심을 쏟으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 한국 전통의 여백의미를 살린 ‘캔버스 디자인’ 선택

대림산업은 3년 전 아파트 업계 최초로 입면 디자인에서 미술 저작권을 획득해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화를 선언했다. 2006년부터는 ‘자연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쉼(休) 프로젝트를 실시해 왔다. 작년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영범 소장과 함께 ‘한국적 정서를 강조한 생태학적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여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국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전통 문화,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강조해 여백의미를 살리는 게 포인트다. 벽면과 커튼, 바닥, 천장, 빌트인 가구 등에 화려한 문양과 색감을 가미하기보다 직선과 사선, 곡선 등 선으로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한국 전통의 공간미를 연출하는 것이다.



1, 2, 3 종로구 삼청동에 자리잡은 대림산업 인테리어팀 사무실 모습. 깔끔하고 모던한 사무실 벽면에 그림 작품을 걸어 두어 감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표현했다.

다실과 서재 등의 공간에는 투박한 나뭇결이 살아있는 마룻바닥과 먼·마·한지 느낌이 나는 벽지, 오래된 나무로 만든 탁자, 선반 등을 설치해 한국 전통의 좌식 문화를 담았다. 거실과 안방 사이의 복도 천장에는 경사진 지붕 형태인 긴 박공 모양으로 설계하고 전통 문양의 블라인드와 미닫이문, 대청마루를 설치해 전통 한옥의 느낌을 살렸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이 작년부터 선보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기본 모토는 '캔버스(Canvas) 디자인'이다. 이것은 입주자들이 자신의 정서와 취향,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고 최소한의 디스플레이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사가 지나치게 현란한 마감재를 설치하면 정작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원하는 가구와 가전 제품, 인테리어 소품들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금까지 무조건 눈에 띄고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사용해 화려한 양식으로 치장해야 좋은 아파트로 인식됐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 유명 디자이너 · 리빙 전문 업체와 손잡고 주거 공간 연출

이처럼 그동안 주택 건설 업계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주인공이 대림산업의 인테리어팀이다. 유명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아파트 평면 디자인을 맡기기도 하지만, 요즘은 건설사마다 사내에 인테리어팀을 두는 추세다.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각각 다른 건축가와 디자이너에게 맡기면 회사 측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디자인이 달라서 자사 브랜드 고유의 스타일을 보여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개인 집을 짓는다면 집 주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주거 공간을 연출하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아파트는 수백, 수천 세대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업체들과 손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명 건축가들과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골치 아파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건설사 내부적으로 인테리어팀을 두고 외부 디자이너들과 손잡기도 한다. 대림산업은 작년부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영범 소장과 손을 잡고 일하고 있다. 그리고 주방 가구·마루·창호 등 리빙 전문 업체들과 보다 전문적인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오면서 내부 인테리어팀 직원들이 어느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상의 수준과 식견을 지니게 되었다고 대림산업 인테리어팀의 김남선 상무는 전한다.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림산업의 인테리어팀처럼 좀더 폭넓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한때의 유행과 트렌드를 좇기에 급급하기보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주거 스타일을 제시하고 리드하는 것이 건설사들의 몫이 아닐까 싶다. ☺



4 빈티지 클래식 스타일(Vintage Classic Style)의 주방. 오크풍의 우드와 민트그린 색상의 조화로 편안하며 따뜻한 느낌을 준다. 빈티지 스타일의 주방. 5 여성스럽고 코리아 스타일(Korea Style)의 거실. 한국 전통의 재료와 한식에서 느낄 수 있는 선, 면을 세련된 기법으로 재해석해서 전통가옥에서 느낄 수 있는 중후하고 우아한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전해준다. 6 블렌딩 스타일(Blending Style)의 거실. 전통적인 클래식 감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블랙과 화이트를 사용해 깔끔하고 시각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공간으로 연출했다.



## INTERVIEW

대림산업 인테리어팀 김남선 상무

### 입주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다



지난 5년간 대림산업의 인테리어팀을 이끌면서 집은 '쉽'이고 '비움'이라는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 김남선 상무를 만났다. 바람직한 주거 공간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과연 집이란 무엇일까, 집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림산업 인테리어팀의 김남선 상무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집은 옷 같아입 듯 같이입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자신의 정서와 취향, 생활 패턴에 맞게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캔버스처럼 비워둬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 후 평가 시스템(POE)을 통해 나온 결과는 화려한 마감재에 비해 계약 했는데 입주 후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 달라 당황스러웠다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가전 제품과 가구가 실내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아 새로 구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또 화려한 아트월과 마감재로 인해 액자나 그림을 걸어둘 만한 데를 찾기 힘들고, 가구와 가전 제품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들이다.

#### e-편한세상, 주거 공간의 본질과 다양성을 담다

고객들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과연 '집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김남선 상무. 먼저 거실과 주방, 안방 등 각각의 공간에서 어떠한 일

들을 할 수 있는지 팀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거실에서는 TV를 시청하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파티를 여는 등 생각보다 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 주방과 식탁에서는 요리를 하고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손님을 초대할 수도 있다. 입주자들마다 다양한 생활 패턴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해 디자인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밝은 베이지 톤과 화이트 톤, 오크톤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미니멀한 가구로 과장되지 않게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형태로 모델하우스를 선보이자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와 타 건설·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현란하게 디스플레이 했다. 이것이 진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너무 성의가 없다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입주해보면 평면의 구성과 동선, 친환경 마감재 등을 사용한 e-편한세상의 스타일에 만족하게 된다 고 김 상무는 자신 있게 말한다.

김 상무가 '캔버스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을 때는 분양률에 민감한 시행사와 여러 업체들은 물론이고 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불평, 불만이 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수차례 설득을 거듭했고 정작 시장의 반응이 좋아지자, '노(No)'라고 이야기했던 그들 모두 지금은 아무런 불평 없이 아낌없는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캔버스 디자인'을 기본으로 해서 7~8가지 스타일로 e-편한세상의 디자인 컨셉트가 잡혀있다. 어느 지역의 어느 단지를 e-편한세상만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있고, 지역의 성향에 따라 새로운 컨셉트를 기미하는 식으로 디자인하고 있다. 주택 건설 업체에서 주거 공간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김 상무는 지금도 끊임없이 '집'에 대한 본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다.